

13과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1일	<p>1.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p> <p>2.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고, 서로 돕는 짝(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p> <p>[설명]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것들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만족을 표하셨지만, 사람을 지으신 후 창조의 모든 것을 보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으심으로 창조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p> <p>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과정을 소상히 기록하셨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에서는 사람의 창조에 대해 총괄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즉, 사람을 창조하시려는 목적(하나님을 대신해 창조물을 다스리는 것, 창세기 1:26 뒷부분)과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이 가져야 할 특성(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26 앞부분)을 설명해주셨고, 창조 후에는 사람이 할 일(창세기 1:28)을 설명해주신 것입니다.</p> <p>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를 위해 사람이 가져야 할 특성, 사람이 해야 할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것을 말씀으로 드러내십니다.</p> <p>이후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구체적으로 사람의 창조 과정을 기록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여 창조하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몇 가지 사실을 더 알려주십니다.</p> <p>첫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서로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필요한 성품과 특성이 있다는 것과, 사람 각각에게는 알맞은 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창세기 2:18).</p> <p>둘째,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으로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에 대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창세기 2:24).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성품적·정서적 특징이 다르지만,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면서 육체적·영적·성품적·정서적으로 연합하고 배우자를 도우며 살도록 하셨습니다.</p>
2일	<p>1.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서로 하나 되어 가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등</p> <p>[설명]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남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고, 이 신비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p> <p>2.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온 땅에 사람이 많아지게 해야 해요(창세기 1:27-28 앞부분). 또 남편은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야) 해요(에베소서 5:33).</p> <p>[설명] 처음 가정을 이룬 아담과 그의 아내는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창세기 2:25). 즉, 부부는 서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여야 하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정을 통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였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또 이런 충만을 이룸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p> <p>또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임을 설명해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요즘 자녀 세대에서 동성애에 관한 여러 가지 세태들이 무분별하게 난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미리미리 자녀들과 대화하며 휩쓸리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아기 때부터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하고 가르치는 것처럼, 미리부터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동성을 좋아하는 감정은 극복해야 하는 감정이라고 알려주어야 합니다.</p> <p>안타깝게도 현재 많은 젊은이들이 사회적, 경제적 압박의 심화로 결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결혼해도 자녀 낳기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우리 부부가 어떻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었는지, 결혼 후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자녀가 어릴 때부터 나누어주세요.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가정을 이루고 번성하며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세워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p>

3일

1. 나의 성별은 무엇인지, 남녀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나는 남자(여자)예요. 남자와 여자는 입은 옷이 달라요. 자라면서 몸의 모양도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자라요. 자라면서 남자는 목소리가 굵어지지만 여자는 굵어지지 않아요. 어른이 되면 힘의 세기가 달라져요. 남자는 커서 아빠가 되고, 여자는 커서 엄마가 되어요.

[설명] 하나님이 남녀가 연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자녀와 이야기 나눌 때, 주로 몸에 관한 차이점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자녀가 자신과 다른 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부모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부모가 당황하거나 얼버무리거나 살짝 넘어가려는 듯한 대답이나 태도를 보이면, 자녀는 무엇인가 알면 안 되는 것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몰래 탐색하려는 성향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러운 태도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남자는 아빠가 될 수 있는 몸으로, 여자는 엄마가 될 수 있는 몸으로 자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 있어. 바로 ‘성기’라고 해. (눈을 가리키며) 이것은 ‘눈’, (코를 가리키며) 이것은 ‘코’라는 이름이 있지? 이것의 이름은 ‘성기’야. 우리가 옷을 입기 전에 속옷을 입는 이유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 맞게 만들어 주신 성기를 잘 보호하고 가리기 위해서란다”라고 자연스럽게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2. 나를 남자(여자)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나를 남자(여자)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내가 남자(여자)라서 좋은 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 나는 남자라서 빨리 달릴 수 있어서 좋아요, 남자라서 공놀이를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커서 아빠가 될 수 있어서 좋아요 등
• 나는 여자라서 치마를 입을 수 있어서 좋아요, 여자라서 노래를 잘할 수 있어서 좋아요, 커서 엄마가 될 수 있어서 좋아요 등

[설명] 자녀 자신이 남자(여자)라서 좋은 점은 스스로 그렇게 느낀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생각에 별 관계없는 대답으로 여겨져도 자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수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부모인 우리는 기존의 성 인식에 따라 자녀들에게 “너는 남자(여자)니까 ... 해야 돼 (하면 안 돼)”라고 강조할 때가 종종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하나님이 남자(여자)는 어떻게 만드셨는지’, ‘남자(여자)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기능을 하게 하셨는지’, ‘남자(여자)는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는지’, ‘어떻게 자라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지’ 등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또 자녀가 자라면서 남자임에도 여성적 성품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여자지만 남성처럼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만 주신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성 인식에 맞게 자녀를 바꾸려고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떤 성품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남자(여자)로 만드신 나를 잘 인식하고 관리하며 자랄 수 있도록 성경적 관점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일

1. 이웃을 나 자신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나와 다르게 만드신 여자(남자)를 사랑하고 소중히 대해야 해요.

2. 이성 친구라는 이유로 같이 놀지 않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여자 친구들끼리 놀 때 남자 친구가 같이 놀고 싶어 했는데 끼워주지 않았어요, 유치원 소풍에서 선생님이 여자 친구와 손을 잡으라고 했는데 잡지 않고 장난치고 놀린 적이 있어요, 잘 기억나지 않아요 등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은 내가 남자(여자)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지 않아서 속상해하실 것 같아요.

5일

1. 여자(남자)인 나는 나를 어떻게 소중히 여길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나의 몸을 소중하고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 매일 깨끗이 씻어요, 다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요, 다른 사람이 내 몸을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싫다고 말해요 등

[설명] 하나님은 남녀가 합하여 가정을 이루게 하시려고 남자와 여자의 몸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점점 다른 몸의 특징을 가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몸의 특징을 이해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짝지어주시는 배우자를 만났을 때, 부끄러움 없이 기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2. 나와 다른 남자(여자) 친구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친구의 몸도 소중한 것을 알고 친구의 몸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요, 친구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장난을 하지 않아요 등

14과 차별하지 않아요

1일	<p>1. 내 주변에 겉모습이나 말과 행동이 나와 다른 친구가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네, 있어요. 우리 반에 외국에서 온 친구(아빠가 외국 사람인 친구,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친구 등)가 있어요.</p> <p>그런 친구를 볼 때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 드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아무 생각도 한 적 없어요, 나와 피부색이 달라서 이상해요, 나와 피부색이 다른데 예쁘게 보여서 부러워요,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p> <p>[설명] 한국의 문화는 (인간관계와 도리를 찾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관계 중심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을 만나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찾는 오랜 습관이 있기 때문에, 혈연·학연·지연 등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문화 습관 속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차별을 하거나 당합니다. 그러나 차별은, 인류 역사의 초기부터 언어를 다르게 하셔서 다양한 민족이 일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입니다.</p> <p>2. 나와 다른 모습을 가진 친구를 싫어하거나 함부로 대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네, 나와 피부색이 다른 친구가 싫어서 같이 놀지 않은 적이 있어요. / 아뇨, 함부로 대하지 않고 같이 잘 놀았어요.</p> <p>하나님은 나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싫어했다면) 속상해 하시고, 그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바라실 것 같아요. / (잘 놀았다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p>
2일	<p>1.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친절하게 대하고, 낡고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통명스럽게 대했어요.</p> <p>2.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요.</p>
3일	<p>1.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하나님의 법과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셨어요).</p> <p>2.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하나님 닮게) 만드셨고(창세기 1:27), 이웃을 자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마태복음 22:39).</p> <p>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어떻게 여기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p> <p>[설명]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차별이 죄의 결과임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죄는 사람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략하게 합니다(로마서 1장). 그러므로 친구를 차별하거나 사랑하지 않는 것은 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임을 가르쳐야 합니다.</p> <p>또 차별은 교만의 결과인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만은 자기중심을 넘어 자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비뚤어진 영향으로 교만이 일어나고, 그 결과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 생깁니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항상 '내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p>
4일	<p>1. 나에게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 특별히 더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예뻐지 않아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또 다른 친구들이 다 좋아하는 친구와 더 친해지고 싶어요.</p> <p>2. 왜 어떤 친구와는 친해지고 싶고, 어떤 친구와는 친해지고 싶지 않은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그 친구가 예뻐서요, 그 친구가 가진 장난감들이 다 좋아 보여서 친해지고 싶어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요 등 • 그 친구가 못 생겨서 친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 친구에게 냄새가 나서요, 그냥 싫어요 등</p> <p>내가 친구들에게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하나님이 이웃을 나처럼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등</p>
5일	<p>1. 주변에 다른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는 친구가 있는지, 나는 그 친구를 어떻게 대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유치원에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가 있었어요. 한국말을 잘 못해서 다른 친구들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나도 잘 놀아주지 않았어요.</p> <p>[설명] 부모님은 자녀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나 친구를 차별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녀가 믿음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으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건강한 자존감이 없을 때,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괴롭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에게 편향된 성품이 있는지 늘 세심하게 찾아 살피고, 자녀의 자존감을 바르게 세워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p> <p>2.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그 친구와 친구가 되어 같이 놀아주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도울 수 있어요.</p>

15과 좋은 말을 해요

1일	<p>1. 나는 오늘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친구 ○○○을(를) 만나서 인사하고 이번 토요일에 같이 놀자고 이야기했어요. • 태권도학원에서 사범님을 만났는데 사범님이 품새를 잘한다고 칭찬해주셨어요.</p> <p>2. 오늘 만난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기뻐는지, 왜 기뻐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친구에게 같이 놀자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요. 친구가 나와 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 사범님에게 품새를 잘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요. 사범님이 칭찬해주셔서요.</p>
2일	<p>1.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과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말, 글, 표정, 몸짓, 수어(청각 장애인), 점자(시각 장애인) 등으로 전할 수 있어요.</p> <p>2. 어떤 말들이 나쁜 말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들었을 때 기분이 나빠지는 말(속상해지는 말, 화가 나는 말, 슬퍼지는 말, 욕하는 말 등)이 나쁜 말이에요. 나는 어떤 나쁜 말을 하는지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아이, 씨”, “너 때문이야”, 욕설 같은 나쁜 말을 해요.</p>
3일	<p>1. 나는 친구에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지, 나쁜 말을 많이 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좋은 말을 많이 해요, 좋은 말을 많이 하지만 기분 나쁠 때는 나쁜 말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등</p> <p>2. 더러운(나쁜) 말은 어떤 말도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선한(좋은) 말을 해야 한다고 말씀해요.</p>
4일	<p>1. 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 할 때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나쁜 말이 나오려는 것을 알게 되면 하지 않고 참으려고 노력해요, 우선 말을 멈추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말로 바꾸어 말하려고 노력해요 등</p> <p>2.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좋은 말, 형제자매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아빠에게: 다녀오셨어요?, 힘드셨죠?,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등 • 엄마에게: 엄마가 해주는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최고예요, 사랑해요 등 • 누나에게: 내가 모르는 것을 잘 알려주어 고마워, 누나가 제일 좋아 등</p>
5일	<p>1.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좋은 말, 선생님께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 친구에게: 네가 좋아, 너랑 계속 친하게 지내고 싶어, 너랑 놀아서 즐거워 등 • 선생님께: 고맙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을게요 등</p> <p>2.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어떤 말을 하게 될지, 앞으로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건지 자유롭게 대답합니다.</p> <p>예 내 마음과 생각이 나쁘면 나쁜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또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면 좋은 말을 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좋은 마음과 생각을 가지려고 노력할 거예요.</p> <p>[부모님께] 하나님은 사람을 특별하게 창조하시고, 언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 특성으로 언어를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삶과 문화를 발전시켜나가기 되었습니다. 오늘은 다음의 주제로 자녀들과 이야기 나누며, 좋은 언어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p> <p>① 내가 자주 하는 말은? 우리는 말할 때 접속어(그리고, 그래서, 왜냐하면 등), 감탄어(와, 예, 야 등), 습관적 반복어(몰라, 진짜 등) 등을 자주 사용합니다. 가족과 함께 내가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 자주 하는 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그리고 왜 그 말을 자주 한다고 생각되는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 서로 찾아봅시다.</p> <p>② 내가 자주 하는 나쁜 말이나 욕설은? 온 가족이 자신이 자주 하는 나쁜 말이나 욕설이 있는지 이야기 나눕니다. 이때 서로 꾸짖거나 화내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세요. 그리고 욕설을 자주 하는 가족이 있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욕설을 그만두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이야기 나누어보세요.</p> <p>③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말 중 가장 좋았던 말은 무엇이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습관을 갖도록 격려합니다.</p> <p>④ 내가 말을 잘못하여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나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말을 잘못하여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함께 이야기 나눕니다. 이때도 서로 꾸짖거나 화내지 말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이야기를 나눈 후에는 평소 생각의 결과가 말로 나온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설 때 좋은 말을 하게 되므로, 늘 마음과 생각을 바르게 지키도록 격려해주세요.</p>

16과 자연을 보살피요

1일	<p>1.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말고도 무엇들을 만드셨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해, 물, 공기, 동물들, 채소들 등이 있어요.</p> <p>2.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아주 좋다고 여기셨어요(아주 만족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내가 가장 아름답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나는 큰 산이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사자가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장미꽃이 예쁘다고 생각해요 등</p>
2일	<p>1. 생육하고(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땅을 채우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p> <p>2.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계속 좋아하시도록 세상을 잘 돌보고 보호해야 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으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잘 돌보고 가꾸어야 해요 등</p>
3일	<p>1. 땅과 자연이 저주를 받아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던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변했어요.</p> <p>2. 신음하며 고통당하게 되었어요(아프게 되었어요).</p>
4일	<p>1. 사람들은 어떻게 자연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지 생각나는 것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녀서 공기가 더러워지고 식물과 동물들이 숨을 못 쉬게 해요, 바다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너무 많이 버려서 바다의 동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높은 건물을 지으려고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산을 깎아서 산 속의 동물들이 살 수 없게 해요 등</p> <p>2. 자연이 아프지 않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자연이 아프지 않게 해야 해요,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아요, 비누나 샴푸 같은 세제를 많이 쓰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써요, 음식이 남지 않도록 먹을 만큼만 먹어서 음식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해요, 재활용품이나 쓰레기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분리수거를 잘해요 등</p> <p>[설명] 사람들이 자연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기술 발달과 편리함을 추구하면서 자연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들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병들게 합니다. 예를 들어 석유 자원을 이용하는 것들, 편리한 플라스틱 도구들, 냉난방에 필요한 자원들, 맛있게 먹기 위해 기르는 가축들 등등이 그것입니다. 둘째,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자연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만 즐거우면 된다는 생각에 자연을 훼손합니다. 쓰레기들, 나무를 함부로 베는 행위들, 산업 및 생활 폐수를 흘려보내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지키는 데에는 우리의 절제와 희생이 필요한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p>
5일	<p>1.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사람들이 자연을 함부로 망가뜨릴 때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속상하실 것 같아요 등 하나님은 자연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대로 아프지 않고 좋은 모습이 되기를 바라실 것 같아요.</p> <p>2. 우리가 자연이 힘들고 아프지 않도록 힘쓰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한다고 좋아하실 것 같아요 등 그러기 위해 나와 우리 가족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를 의논하여 정하도록 합니다. 예 고체 샴푸와 고체 세제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요, 주말마다 온 가족이 나가서 우리 동네의 쓰레기와 담배꽂이를 주워요, 물통이나 텀블러를 들고 다니면서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음식을 주문할 때 냄비를 들고 가서 플라스틱 그릇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비닐봉지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등</p> <p>[설명]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그분의 뜻대로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p>

17과 나쁜 일이 많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1일	<p>1. 이 세상에는 어떤 나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모르는 사람을 마구 때리고 다치게 하는 일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의 돈과 물건을 훔치는 일이 일어나요 등 내가 경험한 나쁜 일은 무엇이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놀이터에서 같이 놀던 친구들과 싸운 적이 있어요 등</p> <p>2.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날지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사람들에게 욕심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쁜 마음을 가지고 나쁜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등</p> <p>[설명] 죄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을 손상시켰고, 그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욕심(로마서 1:26)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죄의 다스림을 받아 사람을 해하고 하나님을 등지는 등 악을 행하고 동조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로마서 1:32).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욕심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2일	<p>1. 부모님은 아래의 쉬운 역본 말씀을 읽어주고, 자녀가 이해한 만큼 기억나는 대로 대답하도록 격려해주세요.</p> <p>예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또한 시기와 살인과 다툼과 속임과 적의로 가득 찼으며, 남에 대해 말하기를 좋아하고, 남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거만하고 건방지며, 뽐내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계획하고,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양심도 없으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친절하지도 않고, 동정심도 없습니다(로마서 1:29-31, 쉬운성경).</p> <p>불의, 악행, 탐욕, 악독, 시기, 살인, 다툼, 속임, 적의, 남에 대해 말하기,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거만, 건방짐, 뽐내기, 부모님께 불순종, 양심이 없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며, 불친절하고, 동정심 없음 등의 나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해요.</p> <p>2.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사람들)이 하는 일이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p>
3일	<p>1.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후(로마서 5:12), 죄가 왕노릇 하며 죄를 따라 살게 했기 때문이에요(6:12).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6:20).</p> <p>2. 나도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나도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해요.</p> <p>내가 나쁜 생각이나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나에게도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p>
4일	<p>1.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처럼 선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세요.</p> <p>[설명] '거룩'은 '구별', '구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란, 죄를 따르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p> <p>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거룩해야 합니다. 또 선하고 바르게 살면서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도 거룩해야 합니다.</p> <p>2. 부모님은 아래의 쉬운 역본 말씀을 읽어주고, 자녀가 이해한 만큼 기억나는 대로 대답하도록 격려해주세요.</p> <p>예 거짓말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 몸에 속한 자들이니, 서로를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며, 화가 지기 전에는 화를 풀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할 수 있도록 놔 두는 것이 됩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으면, 도둑질을 그만두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시작하십시오. 그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오히려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가십시오(에베소서 4:25-28, 쉬운성경).</p> <p>거짓말을 하지 말고,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빨리 풀고, 도둑질을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아야 해요.</p>
5일	<p>1. 우리가 바르고 선하게 살면 사람들이 좋아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네, 좋아할 거예요. / 아니요, 싫어할 거예요. /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p> <p>방해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해요.</p> <p>2. 선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에요(마태복음 5:16).</p> <p>선하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지 궁금해 할 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 대답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이에요(베드로전서 3:15).</p> <p>[설명]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니까요” 정도로 대답할 것입니다.</p> <p>이런 자녀들의 대답을 인정하고 칭찬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선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궁금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덧붙여 설명해주세요.</p>

18과 언제나 승리해요

<p>1일</p>	<p>[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p> <p>이번 주 에브리데이를 시작하기 전에, 부모님들께 저희가 이 과를 만든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p> <p>자녀들이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영적 전투(싸움)’가 있습니다.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려는 마음과 내 욕심 사이의 싸움이 있는 것이지요.</p> <p>우리는 선한 결정이나 행동을 하려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행동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두려움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두려움(이질감)입니다.</p> <p>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두려움을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영적 싸움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평소 자녀들에게 부모님이 어떤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그 과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영적 싸움을 할 때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늘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p> <p>1. 어른들이 하지 말라고 한 일을 몰래 한 적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선생님이 놀이터에서 줄을 서서 차례대로 놀라고 하셨는데 친구가 안 볼 때 몰래 새치기를 했어요, 친구가 어린이집에 멋진 장난감을 가져왔는데 말하지 않고 몰래 가져왔어요, 엄마 지갑에서 몰래 돈을 꺼냈어요 등</p> <p>[설명]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꾸짖지 말고 솔직히 말한 것을 칭찬하고 용서해주세요.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했을 때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부모님께 잘못을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자녀로 자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도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p> <p>2. 왜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어른들이 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어요,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지 못해서요 등</p> <p>그런 행동을 왜 몰래 하려고 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그게 나쁜 행동인 것을 알아서요, 하지 말라는 일을 한 것 때문에 혼날까봐 무서워서 숨기려고 하게 돼요 등</p> <p>[설명] 왜 어른들이 하지 말라는 행동을 몰래 하게 되는지에 대해 자녀는 단순히 “하고(먹고, 갖고 등) 싶으니까” 정도의 대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쁜 것임을 알지만 하고(먹고, 갖고) 싶으니까 몰래 하게 되는 마음은 바로 ‘욕심’입니다. 그리고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는 드러날까 봐 ‘두려움’을 갖게 되어 더욱 더 큰 죄를 짓기 반복합니다. 이것이 죄의 특성입니다(은폐성, 반복성, 확장성).</p> <p>부모님은 죄의 특성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와 죄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주세요. 지금이 죄를 불러일으키는 욕심과 죄로 인한 두려움, 눈덩이처럼 커지는 죄의 확장성에 대해 가르칠 수 있는 적기입니다.</p> <p>또한 바르지(정당하지) 못하지만 하고 싶은 마음, 즉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는 것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도둑질은 욕심에서, 동성애는 욕정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설명해주고,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욕심은 참고 이겨내야 할 것임을 잘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p>
<p>2일</p>	<p>1. 성경은 욕심을 ‘죄’라고 말씀해요(욕심이 생기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게 된다고 말씀해요). 네, 우리는 욕심을 참지 못하고 죄를 짓는 죄인이예요.</p> <p>2. 죄를 이겨야(다스려야) 해요(죄를 짓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해요).</p>
<p>3일</p>	<p>1. 우리의 믿음으로 죄의 유혹(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p> <p>2.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p>
<p>4일</p>	<p>1.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 이렇게 살면 죄(세상)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어요.</p> <p>2. 예수님을 통해 죄를 거뜰히(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어요.</p>
<p>5일</p>	<p>1. 나는 오늘 어떤 죄를 지었는지 조용히 생각해보고,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오늘 30분만 TV를 보기로 부모님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그만 놀고 자라고 하시는데 더 놀고 싶어서 때를 썼어요 등</p> <p>2. 온 가족이 찬양을 부른 후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p> <p>예 하나님, 오늘 30분만 TV를 보기로 부모님과 약속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한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나를 구원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19과 죄를 지으면 돌이켜요

1일	<p>1. 요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잘못을 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① 친구가 유치원(어린이집)에 가져온 장난감이 좋아 보여서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 몰래 내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왔어요.</p> <p>[설명] 자녀가 자신의 잘못을 고백할 때, 꾸짖거나 크게 혼내지 말고 솔직히 고백한 것을 칭찬한 뒤 자녀가 잘못을 반성할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죄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권면해주세요. 그래야 나중에도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고 반성하는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p> <p>2. 이 일을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① 들킬까봐 무서웠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등</p> <p>이런 마음이 들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① 친구와 선생님과 엄마에게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빌어요.</p>
2일	<p>1.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어야 해요.</p> <p>2.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거예요.</p>
3일	<p>1. 지금 내가 고백해야 할 죄를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적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합니다. ① 하나님, 저는 아빠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p> <p>2. 하나님의 말씀(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해요.</p> <p>[설명] 하나님께 회개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의 죄로 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의 올바른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를 입힌 사람에게도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함을 반드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4일	<p>1.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p> <p>2.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p>
5일	<p>1. 이전에 친구를 미워하거나 무시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① 친구를 미워하거나 무시했던 죄를 돌이키고, 이제는 친구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해요.</p> <p>2. 내 잘못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① 며칠 전에 친구가 어린이집에 젤리를 가져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내가 몰래 먹어버렸어요. 그 친구는 젤리가 없어졌다고 무척 속상해했고요. 친구에게 젤리를 사서 돌려주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겠어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할래요.</p>

20과 예수님께 걱정을 맡겨요

1일	<p>1. 요즘 나에게 걱정되거나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모래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소풍을 가는데 감기에 걸려서 소풍을 못 갈까봐 걱정이예요,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줘요 등</p> <p>2. 걱정이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불안해져요, 무서워져요, 기분이 나빠져요 등</p> <p>이런 마음일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힘들지만 참아야 해요 등</p> <p>[설명] 우리 자녀들은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부모의 기대, 사회의 기대, 행복한 삶, 인간관계, 건강 등 모든 것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경쟁이 치열할수록 자신감은 없어집니다. 이것을 이기는 길은 자신의 삶을 꾸준히 살아가는 방법뿐이기에, 어려서부터 두려움과 걱정을 마음에 가두어 놓지 않고 부모님과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연습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과를 진행할 때 부모님은 자녀가 이야기하는 두려움과 걱정을 간섭하거나 꾸중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며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p>
2일	<p>1. (바울에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예요.</p> <p>2. 바울에게 배운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디모데에게 어떤 걱정이 있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다가 틀리면 어떡하나 걱정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을 거예요 등</p> <p>3. 두려워하지 말라(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말해주었어요.</p>
3일	<p>1.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모든 걱정과 근심(두려움)을 맡겨야 해요.</p> <p>2. 걱정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구하는 것이예요.</p> <p>3. 내가 하는 걱정이나 두려움 중에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친구들이 나랑 안 놀아줄까봐 걱정하는 것이요, 할머니가 편찮으신 것이요 등</p>
4일	<p>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7 뒷부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걱정과 두려움을 말씀드릴 수 있어요.</p> <p>2. 하나님께 우리의 걱정을 맡기면 우리를 돌보아주세요(베드로전서 5:7).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빌립보서 4:7).</p>
5일	<p>1.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며 살아요(마태복음 25:21).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골로새서 1:10).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마태복음 5:16).</p> <p>2. 내가 걱정했던 일 중에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정하여, 걱정을 맡기는 기도를 자유롭게 드리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친구들이 저와 같이 놀아주지 않아서 걱정이 되고 많이 속상해요. 제가 친구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게 해주셔서, 앞으로는 잘못을 고치고 좋은 친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친구들의 마음도 바꿔주셔서 저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p>

21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요

1일	<p>1.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을지,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p> <p>2.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기 때문에(디모데전서 2:4),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마가복음 16:15).</p> <p>[설명] 복음 전도는 단순한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작게는 구원의 믿음을 전하는 것이며, 크게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곧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일평생 소금과 빛으로 살면서 생활을 통한 전도, 관계를 통한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p>
2일	<p>1.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해야 해요. [설명]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p> <p>2. 그림의 모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를 만날 때,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면서, 몸이 불편한 친구를 도와주면서,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p>
3일	<p>[설명] 오늘의 활동은 그림을 색칠하고 내용을 따라 읽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복음의 내용을 함께 익혀보는 활동입니다.</p>
4일	<p>1.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잘 들어주어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사이좋게 헤어져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또 전해요 등</p> <p>2.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자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언제나 이야기해야 해요, 이야기할 수 있을 때마다 이야기해야 해요 등</p>
5일	<p>1. 내 주변에서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옆집 형과 가족들이요, 외삼촌 가족들이요, 친구 ○○(이)요 등</p> <p>2.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듣기 싫어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들어주어서 고맙다고 말해요, 하나님께 다음에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지 않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등</p> <p>3.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요.</p>



22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참고 견뎌요

1일	<p>[이 과를 시작하기 전에]</p> <p>부모님!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p> <p>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르게 사는가?’라는 의문을 가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걱정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님이 살게 하신 방법대로 인내하며 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과는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인내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내의 연습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자녀와 함께해주세요.</p> <p>1.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겪은 적이 있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유치원에서 자유놀이를 하는데 친구가 저한테 블록을 던져서 이마를 다쳤어요, 어린이집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친구가 뒤에서 밀어서 발목을 다쳤어요, 아빠와 엄마가 크게 싸워서 힘들었어요 등</p> <p>[설명] 모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닌, 모든 사람이 겪는다는 점을 자녀에게 잘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 <p>아울러 어린 연령의 자녀는 이 질문을 어려워할 수도 있으니, 부모님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의 대답을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의해주세요.</p> <p>2.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속상했어요, 싫었어요, 내가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억울했어요, 슬펐어요 등</p>
2일	<p>1. 이유 없는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것일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죄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빠서요, 잘 모르겠어요 등</p> <p>2. 나도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우리 반에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가 있어서 그 아이를 따돌리고 다른 친구들하고만 놀았어요, 동생이 미워서 같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등</p> <p>[설명]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와 세상과 사람들이 망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설명해주세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나의 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속상하고 힘든 일을 겪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p>
3일	<p>1. 지금 나에게 찾아온 어려운 일, 힘든 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p> <p>예 최근에 독감에 걸려서 열이 많이 나고 아팠어요,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가 많이 아프세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등</p> <p>[설명] 우리가 겪는 어려움 중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있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 묻지 마 폭력이나 전쟁처럼 사회나 국가적 차원으로 확장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자녀는 1일차 때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답하거나, 위와 같이 확장된 어려움을 답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답이든지 듣고 격려해주세요.</p> <p>2.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p>
4일	<p>1. 하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것보다 큰 어려움(시험)을 당하게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려움(시험)을 당할 때는 어려움(시험)을 이기고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시며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p> <p>2. 어려움에 대한 염려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맡기고(베드로전서 5:7),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노력하며 살아요(데살로니가전서 4:1).</p>
5일	<p>1.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잘했다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거예요.</p> <p>2. 지금 내가 참고 견뎌야 하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부모님께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p> <p>예 • 아빠와 엄마가 다투실 때 무섭고 힘든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 해요. • 할머니가 아프신데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어서 속상한 마음을 참고 견뎌야 해요.</p> <p>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내가 견뎌야 하는 어려움을 기도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p> <p>예 • 하나님, 아빠와 엄마가 싸우지 않고 항상 사이좋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 하나님, 할머니가 얼른 건강해지도록 도와주세요.</p>

23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1일	<p>1. 최근에 내가 기다린 약속 중 가장 좋았던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가족들과 주말에 놀이동산 가기로 한 약속이요, 수영장 가기로 한 약속이요, 아빠가 자전거 사주기로 한 약속이요 등</p> <p>2. 그 약속을 기다릴 때 내 마음은 어땠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약속한 날이 올 때까지 너무 설레고 기뻐요, 약속한 날이 너무 느리게 오는 것 같아 기다리기 힘들었어요, 약속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등</p>
2일	<p>1.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우리가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p> <p>2.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시며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p>
3일	<p>1.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세요.</p> <p>2.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세요.</p>
4일	<p>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님께 하는 것처럼 하고(골로새서 3:23),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해요(마가복음 16:15).</p> <p>[설명]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와 장소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만 관심을 갖고 살다 보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루어야 하는 목적(모든 일을 주께 하듯 최선을 다하고, 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행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것입니다.</p> <p>간혹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면 모든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고 교회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상에서 성경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리는 태도입니다.</p>
5일	<p>1.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모르겠어요 등</p> <p>2.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해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되는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것, 부모님(어른들) 말씀을 잘 듣는 것, 건강하게 자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것 등</p>

24과 우리를 위해 천국을 준비하셨어요

1일	<p>1.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우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가시고, 그런 뒤에 다시 돌아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어요.</p> <p>2. 천국이에요.</p>
2일	<p>1.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해한 대로 (말씀의 범위 안에서)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밝게 빛나고, 성벽은 벽옥으로, 성 전체는 순금으로 지어져 있어요. 열두 대문은 각각 한 개의 커다란 진주로 만들어졌고, 성의 거리도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부터 생명수의 강이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 강의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모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어요.</p> <p>2. 천국에는 죽음, 슬픔, 울음, 아픔이 없어요. [설명] 죽음, 슬픔, 울음, 아픔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생기게 된 것들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죄 때문에 생겨난 죽음, 슬픔, 울음, 아픔도 당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p>
3일	<p>1. 하나님이 친히 우리(하나님의 백성)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때문이에요. [설명] 천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주신 완전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족하고 잘못되고 손상되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천국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 이 세상을 잘 이기는 방법이 됩니다. 특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처음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완성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p> <p>2.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은 얼마나 좋을지 나의 말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예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면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계속 지켜주시고 사랑해주시니까 사랑이 넘칠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등</p>
4일	<p>1. 내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요한복음 1:12).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에베소서 2:8).</p> <p>2. 아니요.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한복음 1:12)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갈 수 있어요(요한계시록 21:27 뒷부분).</p>
5일	<p>1. 내가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에 대해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아빠, 엄마, 동생,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이모부, 친구 ○○○랑 같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그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주어야 할 사람(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인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이모와 이모부예요. 그들에게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명절에 만나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놀 때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p> <p>2. 천국에 들어갈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유롭게 대답하도록 합니다. 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요, 복음을 전하며 살아요, 기쁘게 살아요, 걱정하지 말고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요,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요 등 [부모님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행동에 대한 것이면 무엇이든 답이 됩니다. 자녀의 대답을 격려해주세요.</p>